

2024년 2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40~04:10 (재방송 매주 월 00:20~00:5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박세진	2/4	[뉴스초점] 미, 보복 의지 재확인..."이란과 전쟁은 원치 않아" [뉴스17] 온라인 시장 '가짜 리뷰' 횡행...쿠팡서도 발견돼	
임윤주	2/11	[출발600]"매뉴얼 무시·정보공유 마비...오송참사, 재난대응체계 붕괴의 결과" [뉴스17] "저출산, 늘봄학교로 극복"...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안지연	2/18	[토요와이드] 명절 기차표 예매취소율 40%...빈 자리도 4% [일요와이드] 유튜브, 카톡마저 제쳤지만...자극적 콘텐츠 논란	
김홍태	2/25	[뉴스리뷰]100억 챙겨 집 싼 클린스만 감독...최악의 1년 동행 [뉴스프라임]"훈련받은 대로"...화마 참사 막은 요양보호사들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2/4(일)	박세진	지난달 24일 보도에서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우리 군의 미사일 요격체계에 대해 전략무기를 다 양화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은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여가며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북수의 미국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 총 수위가 높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제시하며, 한반도	말씀 주신 사항은 1월 24일이 아닌 29일 보도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북한은 순항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됐고, 전략 무기 다양화, 총선 전까지 긴장 수위 고조 등 분석을 리포트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1월에 북한이 여러 도발을 하던 시기라

		<p>에 전면전이 발생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지만 만일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선다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비슷한 수준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단순한 사실전달에 그치지 않고 도발 강도 및 도발 배경을 분석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에서 한가지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도발 분석 및 전망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4일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서 기자는 앞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총선 전까지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전망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당 주장이 전문가의 분석에 기반한 것인지 외신의 보도에 근거한 것인지를 함께 전달했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시 심도 있는 분석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p>	<p>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 의도와 같은 분석적 내용은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그런 보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보도가 이뤄지다 보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근거 제시나 분석을 깊이있게 터치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리포트에 분석한 내용은 이전 리포트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짧은 리포트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방송 기사로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신 말씀 반영해 앞으로 기사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p>
2024 2/11(일)	임윤주	<p>정부의 제4이통사 찾기 노력은 2010년 이후 8번이나 이어졌는데, 드디어 결실을 본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과점으로 경직됐던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p>	<p>제4 이통사 선정은 휴대전화의 삶의 일부인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연합뉴스TV도 선정</p>

		<p>지 주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기준 95% 가량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은 만큼,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합뉴스TV에서도 선정 전부터 관련 소식을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지난 연합뉴스TV 보도를 보면, 정부는 3사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이들의 과점 구도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을 시도했었는데요. 10년간의 노력 끝에 제4이통사가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도입 배경을 설명한 바 있듯 꾸준히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도에서 언급한 5G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설명이나, 향후 이통사 경쟁 구도 및 이용자의 통신비에 미칠 영향력 등에 대해 다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과정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은 제4 이통사 등장에 따른 대역 주파수나 향후 이통사 경쟁 구도를 별도로 분석해 보도하는 데는 미진한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통사 요금부터 경쟁력 등 지속해서 관심 사안을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2024 2/18(일)	안지연	<p>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노선은 순식간에 매진이 되는 등 명절마다 치열한 예매 전쟁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막상 명절 연휴 기간이 되면 예매 취소로 4% 정도가 빈 좌석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토요일이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명절 기차표는 전국민 티켓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예매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클릭하게 되면 접속 자체가 힘들어 예매 경쟁이 굉장</p>	<p>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예매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연합뉴스TV도 기차 예매 상황과 문제점을 지속해서 보도해왔고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실제 이용객들의 인터뷰까지 넣었다면 기차표 예매의 불편 등을 더욱 잘 보여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차 예매 등을 보도할 때 이용객 입</p>

		<p>히 치열한데요, 기차표가 꼭 필요한 승객에게 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승차권 예매 취소로 인해 기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객이 많다는 인식 확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명절기간 실제 승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제 이용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덧붙여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p>	<p>장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p>
2024 2/25(일)	김홍태	<p>지난 15일 뉴스워치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15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한국이 지난 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뒤진 것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신호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해석하는 니혼게이지신문의 분석처럼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면 경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혁신 역량 강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의 확립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우리 경제의 상황을 조금은 직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비록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처럼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p>	<p>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요 현안들이 많다 보니 미처 이런 문제에까지 시선이 가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일본과의 비교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GDP 성장률 비교 등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른 거시 지표의 흐름과 경제 동향을 살펴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지적하신 문제의식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된다고 하지만 이는 예상일 뿐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p>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02. 04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3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일주일새 3번의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얼마 전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연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30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과 28일에도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3번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이례적이며, 신형 미사일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달 24일에는 평양 인근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불화살-3-31”을 발사했고, 같은달 28일에는 동해 신포 일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시험했는데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보도에서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우리 군의 미사일 요격체계에 대응해 전략무기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은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여가며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층 수위가 높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제시하며,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지만 만일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선다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비슷한 수준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단순한 사실전달에 그치지 않고 도발 강도 및 도발 배경을 분석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에서 한가지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도발 분석 및 전망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4일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서 기자는 앞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총선 전까지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전망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당 주장이 전문가의 분석에 기반한 것인지 외신의 보도에 근거한 것인지도 함께 전달했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 시 심도 있는 분석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미군기지가 친이란 무장단체의 드론 공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르를 공습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8일 새벽,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이 요르단 북부에 위치한 미군 주둔지 “타워 22”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미군 세 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는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무장 단체 '이슬라믹 레지스탕스'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응해 강력히 보복할 것임을 천명했고, 공격 주체 및 배후에 대한 수차례의 공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고문 센터에 대한 공격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은 물론 이란군 군사고문 여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확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전쟁에 참여할 경우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우리나라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연합뉴스TV가 시의적절한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이 국제 안보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합뉴스TV의 이번 중동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의 경우 미국이 공격당했

고, 미국의 여론은 이러하며, 앞으로 미국의 대응은 이렇게 전망된다는 내용이 보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과 조치가 중동의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있어 중요한 가치는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즉, 여러 당사자의 입장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됩니다.

분쟁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결책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란, 시리아, 요르단 등의 관점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보도가 이어진다면 중동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합뉴스TV가 그러한 시도에 앞장서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시장의 가짜 리뷰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통해 모집된 사람들을 통해 온라인 상의 리뷰 조작이 진행되고 있고, 가짜 리뷰의 댓가로 금전이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가 가짜 리뷰 참여 의사를 밝히면, 개별 채팅으로 주문해야 하는 물건을 안내받아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값을 결제하고, 집에서 빈 박스를 배송받은 뒤 별점이나 리뷰를 달고 인증하면 댓가가 지불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아울러 쿠팡이 물건을 직매입해 판매 중인 '로켓배송' 제품은 이런 빈 박스를 보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택배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물건을 반품하는 형태로 리뷰가 조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허위 리뷰 전담팀을 두고 적발 시 제재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소비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고를 때 리뷰가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마련입니다. 일종의 구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온라인 상의 구전이 거짓 정보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실제 사례에 기반해 지적한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직접 판매를 관리하는 거래에서도 가짜 리뷰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발견해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플랫폼 외에 다른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후속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02. 11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3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지난해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 얼마 전 연합뉴스TV를 통해서도 전해들으셨을텐데요. 이번에는 해당 재난 대응 체

계에 대해 피해 유가족들이 직접 원인을 조사하였다는 보도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600>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는 지난해 여름 지하철도에 물이 들어차며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에 대하여, 관련 유가족과 전문가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자체적으로 규명하여 발표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시민조사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침수 우려 도로'로 분류된 지하철도를 재난 대응 매뉴얼 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예방에 관한 최종권한을 가진 단체장들의 과실도 지적했습니다.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조사위는 오송참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난이었다며, 진상을 밝혀 유사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재난 이후의 과정을 본 뉴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환기할 수 있게 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진상조사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정리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 말미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재판부가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덧붙였다면, 본 보도에서 진상조사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쟁점과 비교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센터13> 보도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됩니다. 우선 2,000 여곳의 학교에서 먼저 시행되지만, 올해 안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이 희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학년 학생으로, 내후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운영됩니다.

보도는 구체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전했는데, 먼저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기존 방과후 돌봄교실은 오후 5시 정도까지 운영되었으나, 늘봄학교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 오후 8시까지 제공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AI와 디지털, 문화·예술 등으로 다양하며, 불가피하게 저녁 시간까지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녁 식사가 지원됩니다. 학교 안팎으로 이동이 있는 강좌의 경우 별도 안전인력을 채용하는 등 상황별 안전관리도 추진됩니다.

이어 <뉴스 프라임>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와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했습니다.

늘봄학교를 두고 가장 먼저 나온 우려는 교사들의 업무 가중입니다. 교육부가 늘봄 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지원실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이번 1학기에는 급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투입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뽑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이 채용을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력과 함께 늘봄학교를 준비하려면 결국 교사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늘봄학교 운영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책임을 교사가 저야하는 것 아니냐는 교사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교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가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학교 선정을 마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힙니다.

올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합뉴스TV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살펴본 <뉴스센터13>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전달하였고, <뉴스 프라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두고 정부와 학교 현장에서 엇갈리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22년에 추진 여부가 채택되었는데요, 실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보성 보도와 쟁점 중심 보도를 균형있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프로그램 추진 채택이 결정된 지난 2022년 말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인력난 등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미 지속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도에서는 정부와 학교 현장의 입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도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해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스태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태이지엑스 측은 "전략적 제휴 기업들과 함께 혁신적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 보급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 조달이 순조롭게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회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알뜰폰 회사 스태이지파이버가 주도하는 스태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8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찾기 노력은 2010년 이후 8번이나 이어졌는데요, 드디어 결실을 본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과점으로 경직됐던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기준 95% 가량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합뉴스TV에서도 선정 전부터 관련 소식을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지난 연합뉴스TV 보도를 보면, 정부는 3사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이들의 과점 구도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을 시도했었는데요, 10년 간의 노력 끝에 제4이동통신사가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도입 배경을 설명한 바 있듯 꾸준히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후

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도에서 언급한 5G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설명이나, 향후 이동사 경쟁 구도 및 이용자의 통신비에 미칠 영향력 등에 대해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10년 동안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오던 조사 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내용에 대해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약 6,30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정리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던 정부가 이번에 10년간 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공개한 것입니다.

보도는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이 누적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백두혈통의 영도체계가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탈북 시기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우 42.6%였다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54.9%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5년 이전 47.9%에서 2016년 이후엔 56.3%로 늘었습니다.

그 외 당국의 통제에 대한 의견, 가택 수색 경험, 뇌물 공여 경험,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 주택 매매 경험 등 다양한 조사 결과에 대해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어, 직접 보고서를 열람해보았습니다. 약 280쪽 가량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로, 보도에서 담지 못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보도에서 전한 내용 외에도 북한 경제 전반, 의식주, 보건 의료, 정보 통신 등 북한 사회 전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주민 의식 등 다양한 분석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소 많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자칫 수치만 나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본 보도에서는 시청자들이 주목할만한 내용에 대해 집중해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정보 인용 시 출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보도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본 보도에서는 보고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곳을 언급하여 추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02. 18.방송):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3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노선은 순식간에 매진이 되는 등 명절마다 치열한 예매 전쟁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막상

명절 연휴 기간이 되면 예매 취소로 4% 정도가 빈 좌석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토요일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명절 연휴에 증가하고 있는 기차표 취소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까지 10차례 설과 추석에 발권된 기차표 3천 240만 표 가운데 40% 가량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취소표는 재판매 되지만 전체 표의 4%는 끝내 팔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설에는 빈 좌석이 5%까지 늘었다고 덧붙이면서 기차표 반환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출발 이후 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연휴에도 빈좌석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1시간 이내에는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고 티켓 가격을 귀속되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명절 기차표는 전국민 티켓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예매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클릭하게 되면 접속 자체가 힘들어 예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기차표가 꼭 필요한 승객에게 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승차권 예매 취소로 인해 기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객이 많다는 인식 확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명절기간 실제 승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제 이용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덧붙여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유튜브가 다양한 사업 전략을 내세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되었는데요, 젊은 세대에서는 짧은 영상, 즉 숏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일요일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서는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 앱으로 통하던 카카오톡은 2위로 집계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서비스 장애 및 무료 서비스 축소, 경영진 리스크 등을 설명했습니다.

유튜브가 간결한 편집 방식과 쇼츠 영상을 내세워 연령대가 낮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전함과 동시에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혐오 등 자극적 소재를 다루는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유튜브 이용에 대해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심심할 때 찾아본다는 어린이의 의견을 전했고 매체 특성상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쉽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한 시민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면 가짜뉴스와 사회적 혐오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데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 선호하는 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정관념과 편견이 고착화되어 사회적 극단주의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보도 말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에 어긋나거나 저연령층에게 정서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법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보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이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덧붙였다면 보도의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교를 선택하고 그에 맞춰 학과를 선택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2학년 이후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학과로 전과를 하거나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학 신입생들은 당장 1학년부터 전과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13일 오후 5시 뉴스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학 내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와 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 폐지 및 학과, 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는 교육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대 수업도 예과와 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에서는 단신에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령, 대학 조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효과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봤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취지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어우러지길 바랍니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비대위를 출범하고 16개 시도에서 권기대회를 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14일 뉴스위치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는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한민국 모든 인재를 흡수하는 한편 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주장했다

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공의단체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있으나 개별 사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개별성을 띠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다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다룬 보도가 빈번하게 이어졌습니다. 보도는 주로 두 집단의 입장을 다룬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의료계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그동안 집단 행동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의사협회의 목소리와 전공의 내부의 개인적인 움직임 등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대응 방식도 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현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도는 현재 서로의 입장만을 중계하는 듯한 내용들이 이어져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 등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종합적인 보도가 이어진다면 현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02. 25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39회-'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지난 15일 새벽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났지만, 요양원 직원들의 필사적인 구조활동과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화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전셋집 구하는 부담이 커져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6일 뉴스리뷰 소식인데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감독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1년 만에 짐을 싸다고 하면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환한 미소로 한국 축구대표팀에 입성한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은 포르투갈은 물론 독일도 이기는 강팀이라며,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는 번번이 낙제점을 받은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은 시작부터 논란이었는데, 지난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감독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짐을 싸다고 하면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까지 나온 최악의 만남이라고 기자가 전했습니다.

여론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악화됐는데, 계약서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감독직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었음에도 대부분 본 거주지인 미국에 머무른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고 합니다. '근무 태만' 논란은 적극적인 선수발굴 의지가 없다는 지적으로 연결됐고, 그때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결과로 답하겠다고 했지만 아시안컵 결과는 4강에서 요르단에 참패하며 결승 진출 실패였습니다. 성적은 물론 패배의 문턱에서도 환한 미소를 보인 클린스만 감독은 국민감정을 읽지 못한 태도라고도 전했습니다.

교체결정후에도 아시안컵 출전의 책임을 선수단에 떠넘긴 추태를 보이며, 100억원의 잔여 연봉을 챙긴 뒤 SNS로 작별 인사를 남겼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문제를 논의한 대한축구협회가, 임원회의를 주재한 정몽규 협회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면서 기자가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먼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축구 팬, 축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축구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사과와 말을 전했습니다.

협회가 이번 아시안컵의 대표팀의 경기 분석과 평가를 하였고 대표팀 감독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대표팀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라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고, 앞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선수단 내부 문제가 불거져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일이 있었으나, 향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종합적인 책임은 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회장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며, 사실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선수 사이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안컵 탈락과 축구협회 관련 내용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는데, 그 때문에라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에 기반하여 균형 잡힌 분석과 공정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지도 논란이 문제였는데, 아시안컵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낸 것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안컵 대회 기간에 발생한 다른 문제들도 한국 축구가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경질 과정에서 협회가 따른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협회장의 발언후라도 이에 대하여는 한 번을 짚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수단 내부의 이슈를 다룰 때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있었음 좋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 내 분열을 조장하지 않아야 하고,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하여 대표팀에서 어린 선수들도 잘 이끌고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어 대한민국 축구가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난 15일 뉴스프라임에서는, 당일 새벽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났고,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요양원 직원들의 필사적인 구조활동과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화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난 6층에 입원해 있던 노인은 17명으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환자는 2명뿐이었는데, 모두가 잠든 새벽 건물 6층 요양원 병실 한쪽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았고, 바로 옆에는 혼자 대피가 불가능한 노인 환자가 누워있던 상황! 화재 경보를 듣고 황급히 달려온 요양보호사가 다른 침상에 있던 이불을 가져와 환자에 덮은 뒤 재빨리 침상을 빼냈고, 곧이어 다른 직원이 달려와 소화기를 뿌려 구조했다고 합니다.

요양원의 발 빠른 대응과 소방 당국의 구조 활동 속에 불길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고 21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고 하는데, 요양원 직원들이 연기를 피해 환자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승강기에 실어 1층으로 내려보냈고 화재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적극 진화 작업과 인명 구조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비록 90대 요양원 환자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고 요양원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초기 진화를 통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평소 받아왔던 소방 훈련 덕이 컸다고 하는데, 요양원 대표는 이런 훈련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소방사에서 진행하고 그런 훈련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화재보도에서는 요양원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소방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큰 참사를 막은 이들의 용기와 준비성을 더 높이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실습을 통한 대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다시 짚을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 요양원 및 유사 시설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데, 함께 시설 내 안전 설비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 정기적인 소방 훈련의 중요성도 다시금 부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 요양원의 사전 대피 계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덕분임이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안전을 위해 다른 시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라면 더 많은 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화재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비상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의 강화를 강조할 필요도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뉴스위치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15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1.9%라는데요,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 1.4%보다 높은 것으로,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뒤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반도체 불황 같은 일회성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것을 전하면서, 다만 국제통화기금이 지난달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는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마무리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한국이 지난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뒤진 것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신호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해석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분석처럼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면 경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혁신 역량 강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의 확립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우리 경제의 상황을 조금은 직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어야 합니다. 비록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처럼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이는 예상일 뿐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15일 뉴스리뷰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셋집 구하는 부담이 커져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도 적용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처럼 전세대출에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DSR을 적용하려는 건 가계대출 잔액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 1천98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무자본 갭투자를 일으켜 최근 수년 사이 전세 사기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연 소득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원금과 대출 이자의 합이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액 상환선을 정하는데요, 전세대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전세대출을 급격히 조이는 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등 파장이 커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검토 중인데요, 무주택자는 제외하고 1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

는 경우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이 DSR을 적용받으면 임차인은 전셋집을 구할 때 본인 자금 부담이 커지고, 부족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수 있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줄어든 대출만큼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면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 비율이 늘리는 보증부 월세가 증가하고 외곽으로 임대차 주거지를 이동하는 패턴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이미 월세 전환이 일어난 데다 대출마저 줄어들게 되면 전세제도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에서 점차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고 전세 사기를 줄이고 무자본 갭투자를 막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전셋값 부담 증가와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증금 비율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제도 시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어 매우 유익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무주택자를 제외한 1주택자에 대한 적용을 고려 중이라 하더라도, 시청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자신의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p>2024년 2월 4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박세진 시청자평가원 한국 ERICA 방송사(ERICA)의 교수</p>	<p>2024년 2월 11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이화여자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연구원</p>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p>2024년 2월 18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안지연 시청자평가원 한양대학교 기초교육학</p>	<p>2024년 2월 25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홍태 시청자평가원 대한변협 공익위원, 변호사</p>